

“ 의보사업의 기본 목표는



일반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근무했던
그는, 직원 복리후생이
너무 소외당한다는
생각에 사명의식을
갖고 의보업무에 투신
했다.

한가위명절을 맞이해서 3일간 연휴를 보내고 다소 나른한 몸으로 기자가 서울 제16지구 의보조합을 찾아가간 시간은 토요일 정오.

넓은 사무실안에는 퇴근시간 무렵인데도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1977년 의보업무가 시작된 이래 여러 조합의 초창기멤버로 활동하여 지금은 의보업무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해박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 제16지구 의보조합 潘碩鎭(52세)급업무장은 사전 약속한 취재시간도 잊은채 업무처리에 몰두해 있었다. 책상 앞까지 다가선 기자를 보며 초면에 결례

를 했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그에게서 웬지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를 느낄수 있었던 것은 숨은 일꾼을 취재한다는 기자의 선입감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7월부터 저희 조합원들 14,000여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과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순회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 참여해 주신 건협직원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압니다.』

연휴기간 동안 산적한 업무가 많아 바쁘다며 웃는 반부장에게 의보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여러조합의 요직을 두

의료사업을 바탕으로 한 국민복지”

서울 제16지구 의료보험조합 潘碩鎭 급여부장

루 거치면서 각종 개척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공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하자, 『제가 의보사업에 투신하면서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이땅에 의보업무가 정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다 지난 10여년간 의보조합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 댓가라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보사업 초창기에는 각 사업장들의 인식부족으로 난관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각종 혜택사업을 추진하여 일반국민들과 사업장들의 인식을 높히도록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보업무의 해박한 이론과 실무로 이 분야에서 따를 사람이 없다고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자. 그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업무가 생소했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로 인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덕분으로 요사이 각종 사업을 과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위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지만 한 업무에 10여년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라며 되묻는다.

지난 경험으로 볼때 앞으로 의보사업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의보사업의 기본적 목표는 의료사업을 바탕으로 한 국민복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에서는 일반국민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현재 각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사는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국민보건 계몽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소신을 밝힌다.

의보조합에 투신하기전, 일반기업에서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복리후생이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 사명 의식을 갖고 의보조합사업에 참여했다는 반부장은, 말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댓가를 바라지 않고 또다른 일을 찾아나서는 사람임을 많은 대화속에서 알 수 있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의로운 일을 하자”라는 가훈아래 이 정자여사와 2남1녀를 둔 가정으로 아침마다 조깅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단다.

〈김정현 글〉